



numbers
vol. 270

한국사회의 갈등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한국인의 2024년 한 해 평가
- ② 고령노인의 연금 수령 실태

2025. 1. 7.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대통령 탄핵과 관련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정치 이슈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자리잡고 있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25년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갈등’을 선정한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혐오와 같은 또 다른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넘버즈는 한국사회 갈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년 이상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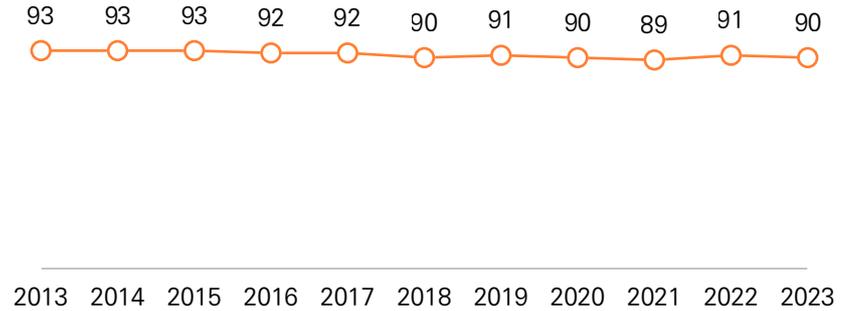
[한국사회 갈등 수준과 인식]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수준, 10년 넘게 변동 없어!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일반 국민, 2023)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심각하다(매우+약간)’ 비율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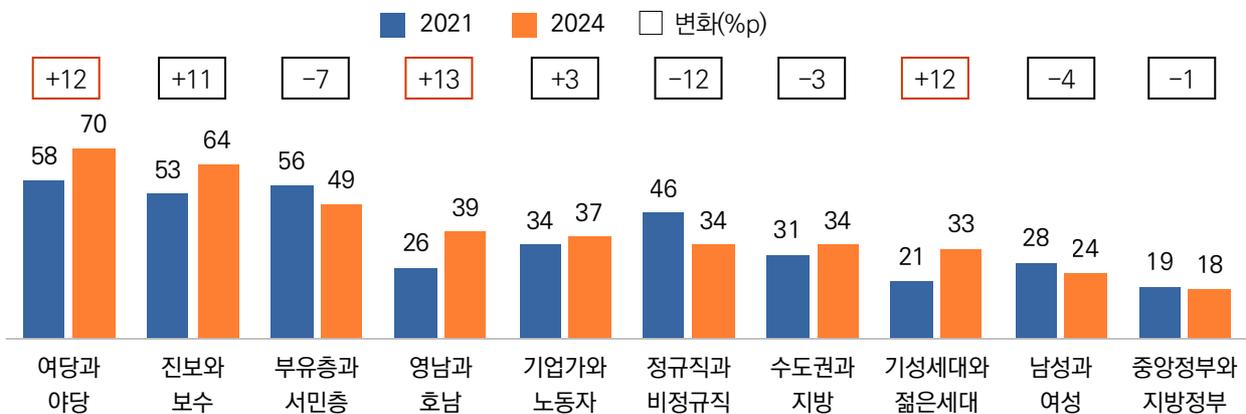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2024.01.03.)

*5점 척도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정치와 이념’!

- 우리 국민은 어떤 집단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만을 놓고 보면 차이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가장 갈등이 큰 집단은 ‘여당과 야당’(70%), ‘진보와 보수’(64%)로 정치/이념과 관련이 높았다.
-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13%p), ‘여당과 야당’(+12%p) 등 역시 정치/이념 갈등 관련이 높았다.
- 한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갈등도 1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내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집단별 갈등 정도 (일반 국민, ‘아주 크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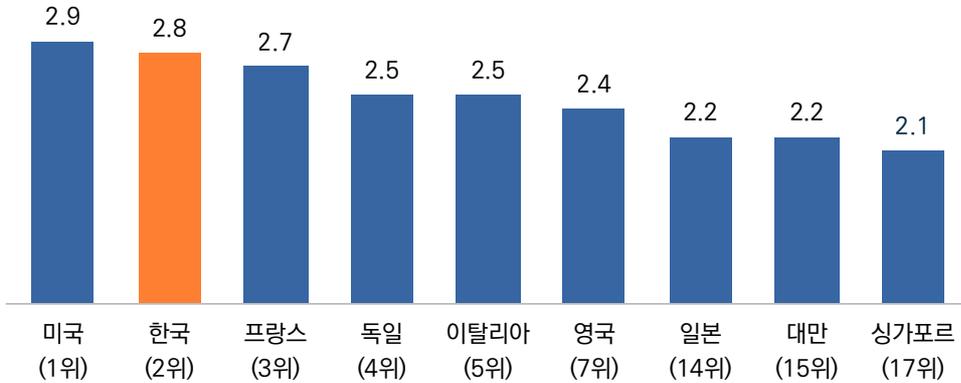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집단별 갈등인식-2024’, 2024.06.1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5.31.~06.03.)

*4점 척도

한국의 사회 갈등, 세계 최상위 수준!

- 이러한 한국의 사회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7개국 대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그림] 국가별 인지된 사회 갈등 수준* (4점 만점, 평균점수)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21.10.13.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4점 척도 : 모든 영역에서 갈등 없음은 1점, 모든 영역에 갈등이 높음은 4점임.

Note) 조사 대상국: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일본, 대만, 스페인,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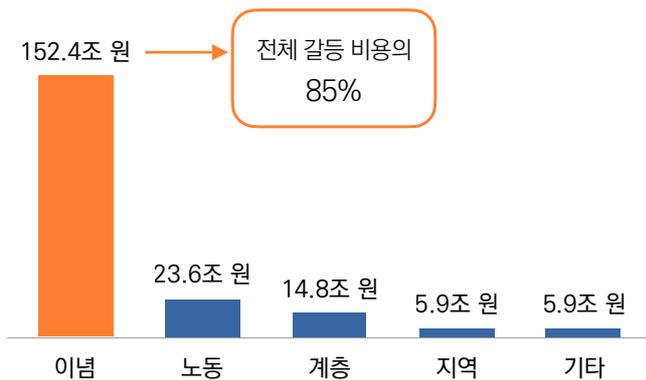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 연 233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수준!

- 이러한 이념과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일까? 국무조정실이 연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233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국가 예산 608조 원의 38%에 해당한다.
- 유형별로는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 비용이 연평균 152.4조 원으로, 전체 비용의 85%를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그림] 사회 갈등 비용 (2013~2022년 기준)



[그림] 유형별 사회 갈등 비용 (1990~2022년 연평균)



※출처 : 이데일리, 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랐다, 2024.04.29. ([https://www.edaily.co.kr/News/](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Read?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위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용역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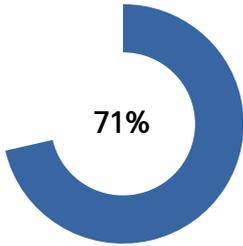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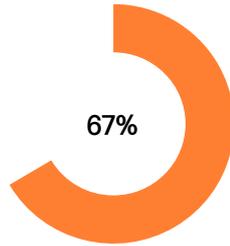
- 이러한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7%)이 동의해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림]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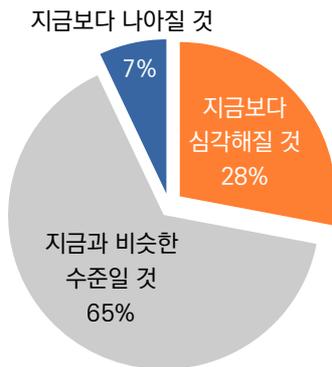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전망, 비관적!

-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전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으며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은 28%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7%)보다 크게 높았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93%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 갈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한국 사회 갈등 전망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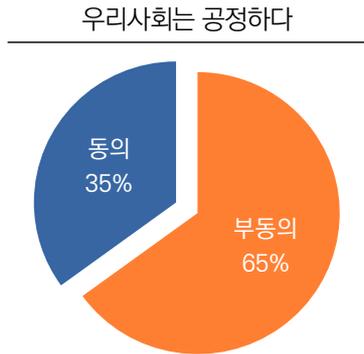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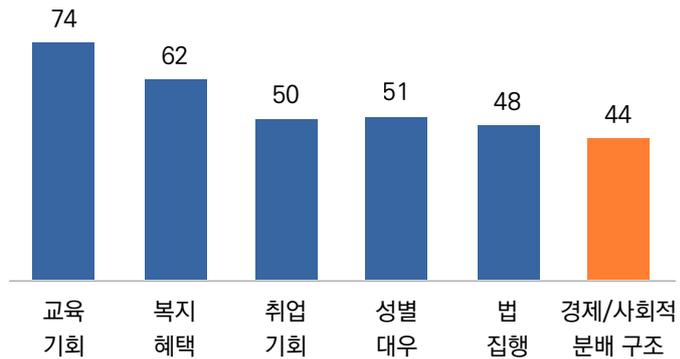
[공정성과 사회 갈등]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3명 중 2명(65%)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공정하다'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기회'(74%)로 나타났으며, '법 집행'(48%),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44%)의 공정성 인식은 절반에 못 미쳤다.

[그림]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그림]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공정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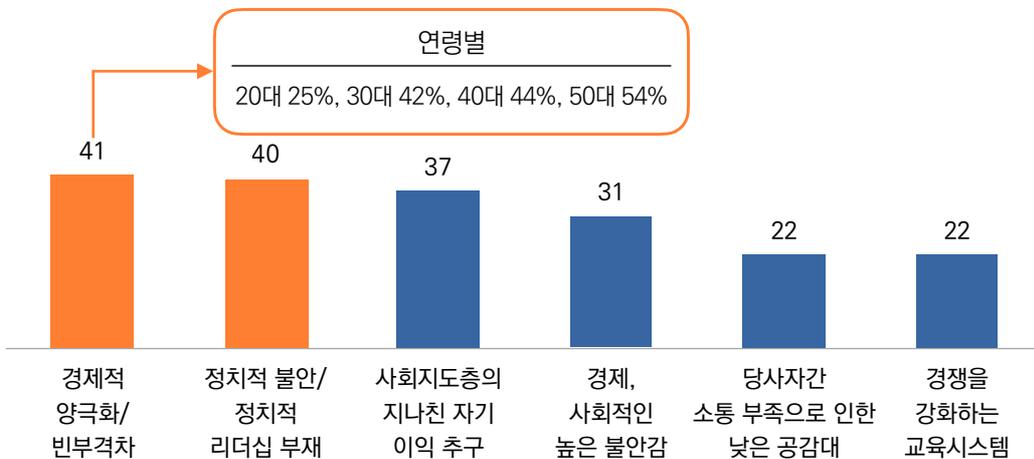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01. (만 19세 이상 남녀 8,221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조사, 2023.09.01.~10.31.)
 *4점 척도

03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빈부격차'와 '정치 불안!'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41%)와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 부재'(40%)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사회적 갈등의 원인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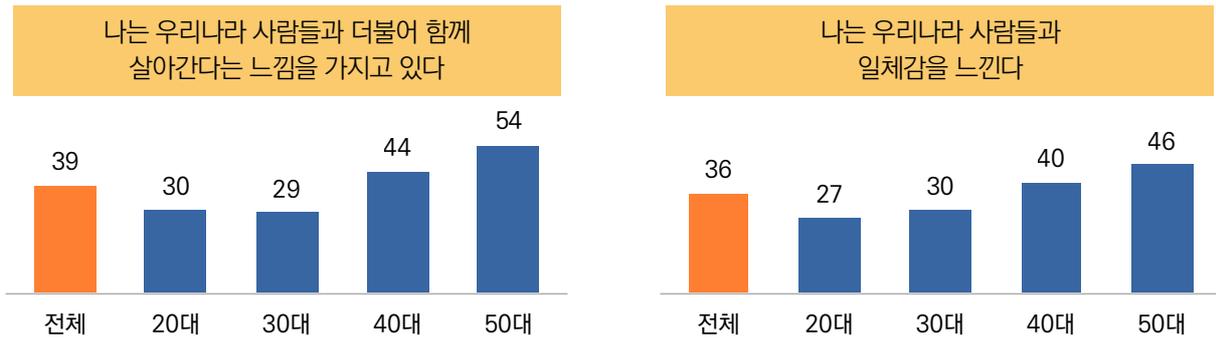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한국인, 실제 공동체 의식 느끼는 비율, 10명 중 4명 미만!

- ‘공동체 의식’이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을 말한다. 사회의 여러 갈등 문제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서로가 협조를 더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어느정도 형성돼 있을까? 공동체성에 대한 실제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39%)만이 동의했으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36%에 머물렀다.
- 공동체 의식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사회 공동체 의식 실제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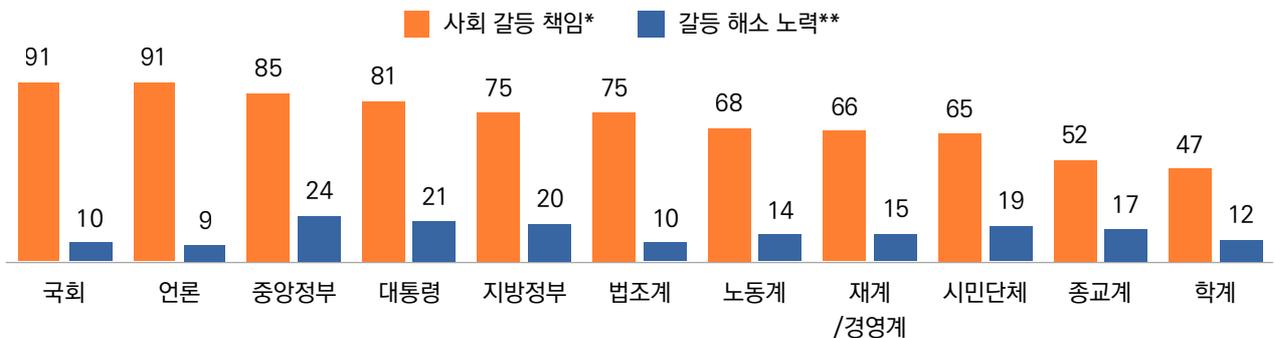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종교계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부보다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영향력이 있는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노력 정도를 살펴본다. 먼저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각각 평가한 결과, ‘국회’와 ‘언론’이 9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중앙정부’(85%), ‘대통령’(8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계’(52%)는 제시된 11개 집단 중 ‘학계’(47%) 다음으로 낮았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여부를 각각 평가한 결과, ‘중앙정부’가 2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통령’(21%), ‘지방정부’(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 노력 평가는 20%대 이하로 크게 낮았다.
- ‘종교계’의 노력 정도는 5위권(17%)으로 사회 갈등 책임 순위(10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정부보다는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받았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일반 국민, %)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2024.01.03.)

*‘책임 있다’ 응답 비율

**‘노력하고 있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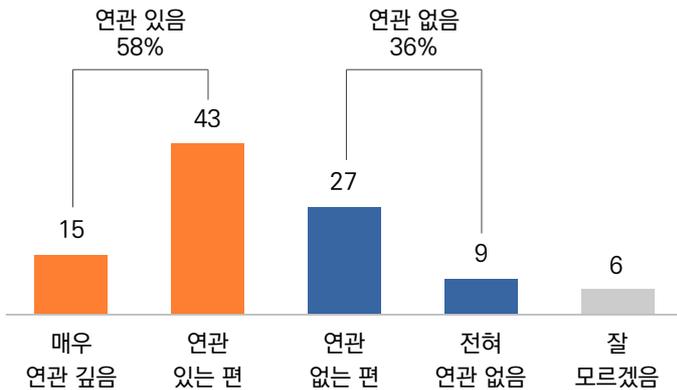
04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기독교인 10명 중 6명, '한국사회 이념 갈등, 한국교회도 연관 있어!'

- 교회와 사회 갈등 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은 어떠할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정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갈등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의 '이념(정치) 갈등' 연관 정도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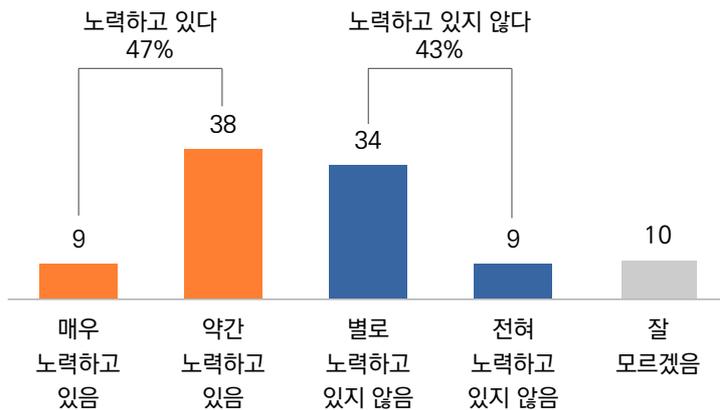


※출처: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기독교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높게 평가하지 않아!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3%)보다 높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매우 노력함' 비율은 9%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 (기독교인, %)



※출처: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이번호 요약

1. 국민 3명 중 2명, 우리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 우리 국민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심각한 갈등 수준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 한국의 사회 갈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2. 지난 10년간 사회 갈등 관리 비용, 연 233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갈등 관리 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된 결과 연평균 23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갈등사회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시대 공감 토크 콘서트]
- ▶ [칼럼] 사회 문제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김영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관련 성경 구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7~18)

목회 적용점

현재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갈등을 보는 듯하다. 본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국가인데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된다. 국가 예산의 38%가 갈등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깨닫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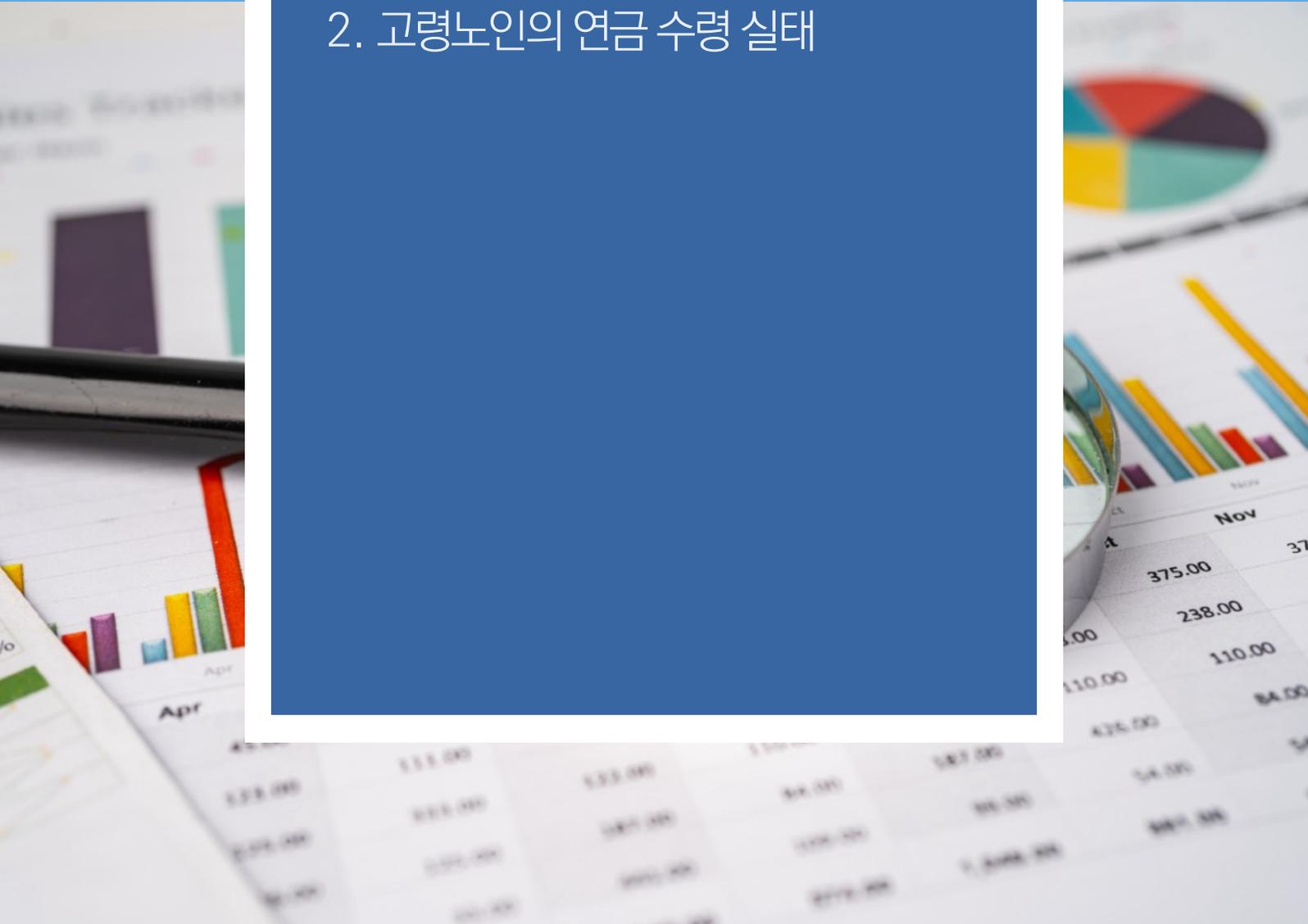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종교가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도에 대해 17%만이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제시된 9개 집단 중 종교단체는 1.2%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집단으로 종교단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교회가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유튜브이다. 예컨대 극우나 극좌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다 보면 확증편향 구조에 의해 처음에는 '진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념적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념 갈등을 보아야만 종교 본연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에게 이 질서와 조화를 보존할 사명을 주셨다. 따라서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목표를 넘어 창조적 사명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념을 '허상'이라 표현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이념을 상대화시키고 사회통합이라는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한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인의 2024년 한해 평가
2. 고령노인의 연금 수령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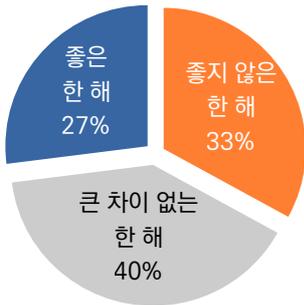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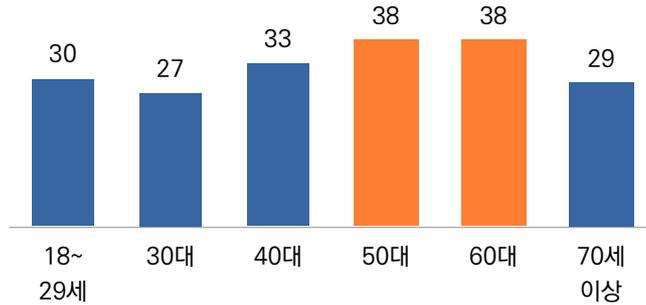
[한국인의 2024년 한 해 평가] 우리 국민의 2024년 ‘개인 평가’, 부정 평가 더 높아!

- 우리 국민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와 관련 조사 결과(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2024년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했는지 평가를 묻은 결과, ‘좋지 않은 한 해’가 33%로 ‘좋은 한 해’(27%)보다 더 높아, 긍정보다는 부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 연령별로 ‘좋지 않은 한 해’라고 평가한 비율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전년 대비 2024 개인 평가*
(일반 국민)



[그림] 연령별 전년 대비 2024 개인 평가 ‘좋지 않은 한 해’ 비율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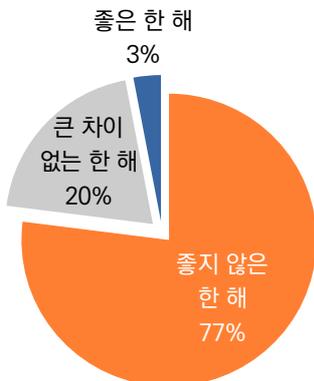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연말결산-2024년] 2024년 한 해 평가, 2024.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2.20.~12.23.)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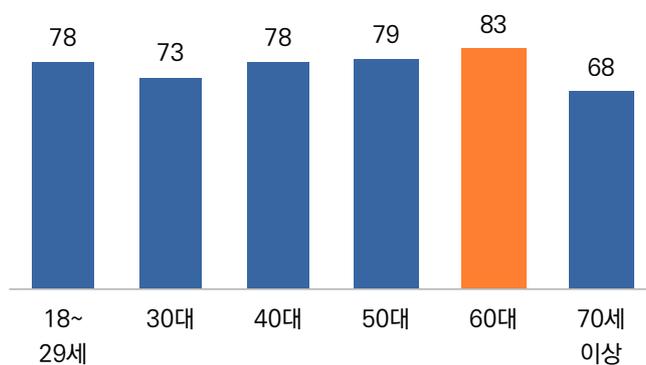
우리 국민의 2024년 ‘국가 평가’, 부정 평가 압도적 높아!

-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2023년과 비교할 때, 2024년의 대한민국은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77%로 4명 중 3명 이상에 해당했다. ‘큰 차이 없는 한 해였다’는 사람은 20%이며, 3%만이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좋지 않은 한 해’라고 평가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했는데, 특히 60대의 부정 평가가 83%로 가장 높았다.

[그림] 전년 대비 2024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일반 국민)



[그림] 연령별 전년 대비 2024 우리나라 평가 ‘좋지 않은 한 해’ 비율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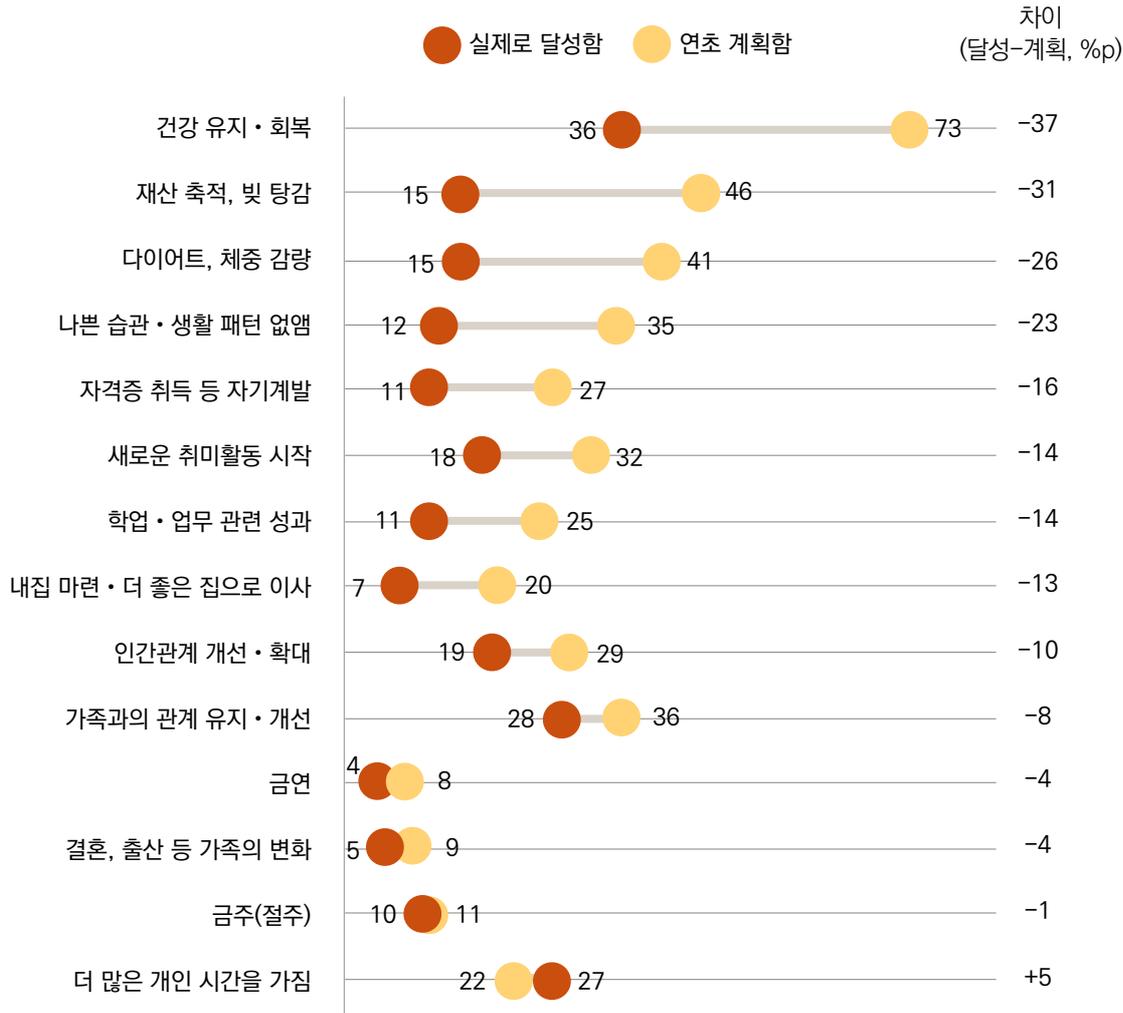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연말결산-2024년] 2024년 한 해 평가, 2024.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2.20.~12.23.) *5점 척도

우리 국민, 2024년 연초 계획대비 달성도, '건강관리' 실패율 가장 높아!

- 연초에는 의지를 다지며 다양한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처럼, 꾸준히 노력하며 목표를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14가지 항목에 대해 2024년 '연초 계획'과 '실제 달성한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달성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 '건강 유지·회복'은 주요 목표 중 가장 많은 사람이 계획했지만(73%) 달성한 목표는 절반 수준인 36%에 불과했으며, '재산축적·빚 탕감(달성 대비 계획 차이 -31%p)', '다이어트·체중감량(달성 대비 계획 차이 -26%p)' 등이 연초 계획 대비 달성률이 높지 않았다.

[그림] 2024년 계획한 것과 달성한 것 비교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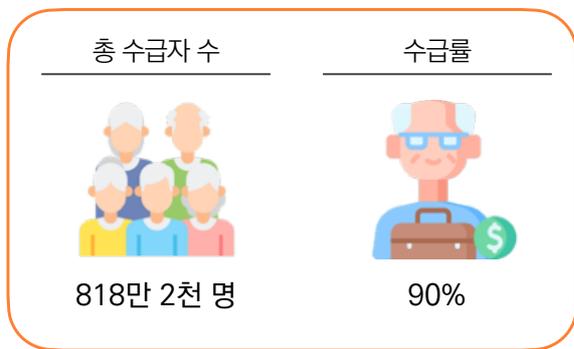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연말결산-2024년] 2024년 한 해 평가, 2024.12.2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12.20.~12.23.)



[고령노인의 연금 수령 실태] 고령노인 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 65만 원!

- 한국은 2024년 12월부터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율 20%)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고령인구의 주된 소득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금 통계 결과를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금 수급 실태를 살펴본다.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약 90%, 818만 2천 명이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1개 이상 수급하고 있었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5만 원이며, 연금 미수급자까지 포함한 전체 노인 월 평균 연금액은 59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급 중위 금액은 42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금 받는 고령노인 중 50%가 월 42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고령노인의 연금 수급 현황 (65세 이상, 2022년 기준)



[그림] 연금 수급자의 월 수급액 (65세 이상,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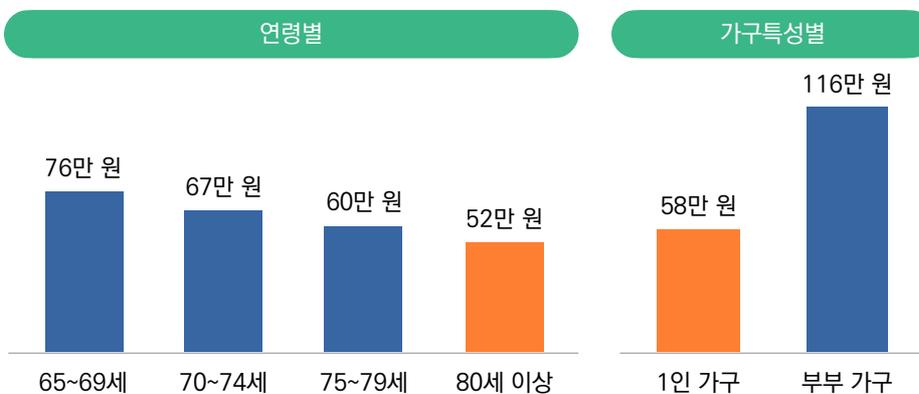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2024.08.22.

*연금 수급금액을 적은 금액부터 많은 금액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50%)에 있는 자의 수급금액

고령 노인의 연금 수급액, 1인 가구 58만 원, 부부 가구 116만 원!

- 연령별로 연금 수급금액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급금액이 적었다. 65~69세의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76만 원, 80세 이상 연령은 5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령대 간 수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연금 종류와 연금의 중복 수급률의 차이로 분석된다.
- 가구특성별 연금 수급금액은 1인 가구가 58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116만 원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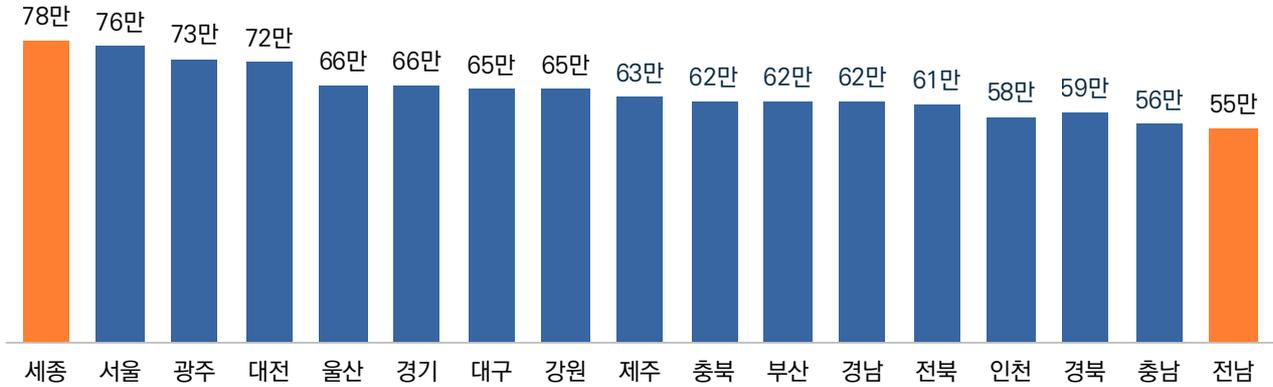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2024.08.22.

전남 지역 노인 연금 수급액, 전국에서 가장 낮아

- 지역별 연금 수급금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이 78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76만 원), '광주'(73만 원) 순이었다.
- 연금 수급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는 '전남'(55만 원), '충남'(56만 원), '경북'(5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역별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2022년 기준, 원)



※출처 : 통계청, 2022년 연금통계 결과, 2024.08.2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범진보 합치면 44, 범보수는 33%](#)

중앙일보_2025.1.1

[비상계엄 “중대 범죄 72%·권한 행사 24%”…‘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6%](#)

KBS뉴스_2025.1.1.

[“尹 수사기관-헌재에 협조해야” 80.3%… 보수층도 “협조” 59.8%](#)

동아일보_2025.1.1.

[국민 69% "비상계엄은 내란"…PK에서도 "내란·즉각체포" 압도](#)

MBC뉴스_2025.1.1.

[국힘 지지층 67.1% “부정선거 있었다”](#)

문화일보_2025.1.2.

[국힘 34.4%·민주 45.2%…“3주 연속 국힘 상승·민주 하락”\[리얼미터\]](#)

연합뉴스_2025.1.6.

사회 일반

[가정의 정신적 부담 71% 짊어지는 사람은 '엄마'](#)

한국경제_2024.12.31.

[더 넓은 비행기로 더 많이 날았다](#)

국민일보_2025.1.2.

[MZ 인식 바뀌자, 9년 만에 출생아 수 늘었다](#)

조선일보_2025.1.6.

[국민 70% "의정 갈등에 피로감"…75% "국민·환자 논의서 소외"](#)

연합뉴스_2025.1.7.

[계엄충격에 파문된 양극화 해법…소득 상하위 10% 격차 2억 넘어](#)

연합뉴스_2025.1.5.

[즐거보는 뉴스 채널 2013-2024](#)

한국갤럽_2024.12.26.

청년·청소년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절반, 근로 병행·생계 책임](#)

연합뉴스_2025.1.6.

[2030 달라졌다…취준생 80% "블루칼라 기피 안한다"](#)

중앙일보_2025.1.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손주 봐주면 월 30만원' 서울시 사업...외조모 54%·친조모 36%](#)

연합뉴스_2025.1.5.

['5명 중 1명 노인' 시대에...月437만원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연합뉴스_2025.1.7.

경제·기업

[육아휴직·유연근로 大-中企 격차 심각...18%는 '육휴 사용불가'](#)

연합뉴스_2025.1.5.

[K-웹툰 매출액 첫 2조원 돌파...6년 연속 성장세](#)

연합뉴스_2025.1.2.

[직장인 절반 "연차 자유롭게 못써"...4명중 1명 "유급연차 없어"](#)

연합뉴스_2025.1.5.

['될 놈만 되는' 백화점...1조클럽 12개 점포 거래액이 절반 넘어](#)

연합뉴스_2025.1.7.

[작년 비급여 진료비 22조6400억원... 도수치료·임플란트·척약 가장 커](#)

조선일보_2025.1.6.

건강

[부자가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건강수명 격차 최대 8.66년](#)

연합뉴스_2025.1.5.

["다이어트 효과만 '확실'하다면야..." '비만 치료제', 불안감 해소가 관건](#)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2.

["올해는 끊어야지" 금연 다짐하는 사람, 점점 줄어든다... 원인은 '돈' 때문?!](#)

헬스조선_2025.1.6.

기독교·종교

["국민들 윤 정부에 '분노' 느껴... 기독교는 4대 종교 중 호감도 꼴찌"](#)

국민일보_2025.1.6.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금광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엘교회, 광주서남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송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도안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모동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남제일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수원화산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세종성한목자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광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은평교회, 이름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조암제일교회, 조양중앙교회, 주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참사랑교회, 충신교회, 충현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풍성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성서유니온,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국성서유니온, 한국IFCJ 가정의힘, 한목회, (재)한빛누리,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남촌레저개발(주),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주)시스코프, 신대종합모터스, (주)참튼건강과학, (주)참물류, (주)치움,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모동교회(위임목사 이요한), 서남교회(담임목사 조택현)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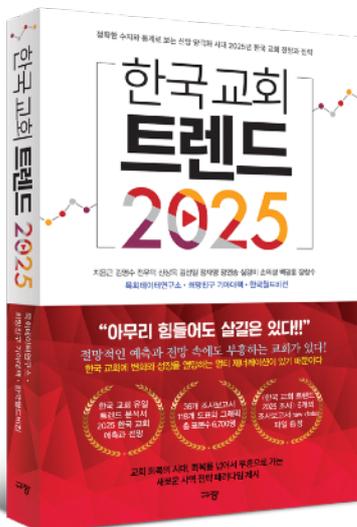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 교회 최초의 트렌드 분석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를 출간한 이후,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 동영상

책 구입 안내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